마음으로 고장난 것 마음으로 고쳐야

☞ 17면에서 계속

그것을 고칠려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잘못돼서 행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질도 하고 깡패 짓도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깐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야죠.

그래서 자식이 그럴 때는 '주인공, 저 뿌리나 내 뿌리나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이건 마음으로 고장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서 불이 켜져야 환하고 밝아지죠.

우주법계가 다 하나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때 꼭 마음도리로써 잘 화합해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죠 "잘났든 못났든 말이야 이 공부하는데 돈이 들으니 걱정이야,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니 걱정이야, 재산을 누가 뺏아가니 걱정이야! 왜 못해?" 이렇게 합니다. (대중 박수) 하하하.

회사를 운영해나가시다 보면 그 요새 뭐 회사 안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그러더군요. 직원들이 제대로 내 일같이 해주질 않는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공부를 해나가는 분들은요 아주 감쪽같이 해나가요. 왜냐하면 기계도 바로 주인 거, 직원들도 주인이 한마음으로 하는 거, 전부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도 없지 자기 것도 하나도 없죠. 기계조차 '기계 너도 생각이 있잖아. 너도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너가 일하는 건데 잘 해야잖아.' 하고 하니까 다 닳아서 고장이 난 것도 감사가 나왔을 때 다 조사하고 간 뒤에 그때 털컥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깐 다 닳았더래요. 끊어지게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 뭐, 고(苦)가 많아서 못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도 지금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나 깨나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 다 업식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자리에다가 되놓으면 돼요.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형성돼 가지고 살고 있지 딴 놈이 만들었습니까. 자기 아닌 딴 사람이 살려줍니까, 뺏아갑니까?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가 되놓고 '응, 그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하고 탁 집어던지고선 나는 슬슬 웃고 허허! 그냥 슬기롭게 살지 뭣 때문에 신경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럽니까.

부처님 법을 별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곤충에서 일체 만물만생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래라는 것도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여래라고 이름지은 것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우쳐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빠짐없이 그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한마음으로써 우리가 이름해서 부처라는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 체험을 해 보세요.

▲질문1: 큰스님 반갑습니다. 큰스님의 감로법에 환희심이 일어나 이 법회에 꽃비가 내리고 천상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리길 머나먼 길 이렇게 오셔서 저희 불자들을 위하여 법좌를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떡 하나를 만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떡 하나가 되남는 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를 나누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남는지 하는 의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리를 저희가 쉽게 이해 되도록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본래는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그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그 씨앗이 되남아서 또 그 이듬해에 또 심어 먹고, 또 심어 먹어도 되남습니다. 비유를 해서 그렇지, 떡 하나 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먹고도 되남는다 하는 뜻을 진짜 아실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실 겁니다. (물컵을 들어보이시며) 이 컵만 보면 컵만 보이시겠지만 이 속에는 컵 아닌 컵이 있습니다. 이 물 한잔 속에는 우주를 담아도 남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이 뜻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저희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모았다면 비우고, 비웠다면 일임하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저는 큰스님의 이 법문을 통하여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간절하게 '주인공' 이라고 하는 것이며, 비운다는 것은 '주인공의 뜻으로' 라고 되놓는 것이고, 일임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이끌어라' 고 한생각 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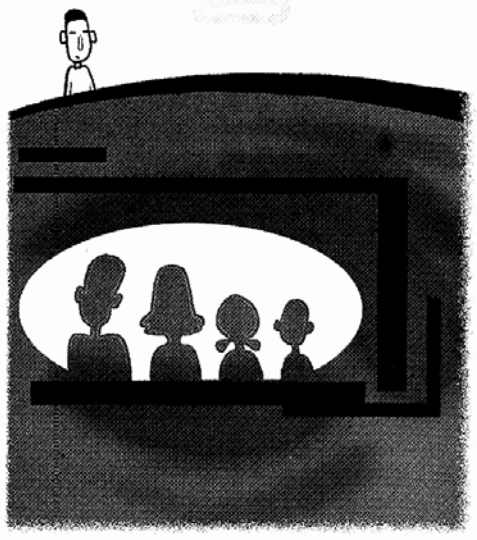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의 어려움 · 쓰라림 · 울부짖음 자기자신 속에서 원인 찾으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큰스님: 네, 아무렇게나 하시더라도요, 그 구녘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저 믿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놓고, 내가 번뇌가 있느니 답답하니 이런 것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그놈이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게 하는 놈이 그놈이니까 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그 구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통할 수 있는 구녘은 그 구녘밖엔 없어요. 딴 구녘에는 과거 · 미래 · 현재가 틍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에 나오는 것은 과거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야만이 현재에 다가오는 모든 걸 타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고 현재도 모두 걸림없이 생활을 할려면 그렇게 놓지 않고는 안 되죠. 즉 말하자면 주인이 내 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 문서를 맡겼다 뺏았다 한다면 종 문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놓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3: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남녀가 둘이겠습니까? 또 그 남녀가 평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계종의 종풍은 아직도 비구 비구니하며 둘로 나누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여 비구니 스님의 대중설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스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매년 해외와 국내 대법회에 참석하시어 설법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남녀가 둘이 아니니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남녀가 둘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느냐 이 뜻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모든 중생들에게 나툴 때, 때에 따라서는 남자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작부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여자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 애도 됐다 늙은이도 됐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는데 어떤 거 될 때에 여자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부처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얕은 소견으로 모습만 보고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규명을 짓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더 말할 거 없고, 난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여자로 보든 남자로 보든 무슨 탓할 게 있습니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를 탓을 합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걸음 걷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트집이 많습니까? 여자라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니 허,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여자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자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저 한마음으로 그저 전부 좋게 살아야죠. 하하하.

▲질문4: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여러 재가불자 신도연합회 등에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불상을 모셔서 조석으로 신행 예불과 기도 정진을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나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님께서는 가정에서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 내 의견하고는 아주 그냥 저 천리만리하고 떨어지는군요. 한번 물어봅시다. 불상을 놓고 그렇게 지내다가 당신이 죽으면 그 불상을 어떡할라요?

▲질문4: 제가 불법을 배울 때는 불법이 마음의 심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의정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을 집에서 모셔서 제 마음법을 다스리기도 바쁜데 부처님께 조석으로 예불하며 기도한다는 게 또 하나 다른 것에 끄달린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온 가족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니 거기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스님: 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놓고 아프다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아주 정말이지 나쁜 업식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빌다 보면 자기 영혼들이 거기에 엉겨요. 정말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혼백들이 거기 엉겨가지고 요다음에 부모가 죽고난 뒤에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거는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대중 박수) 부처님을 열 분을 보더라도 내 한마음 속에 부처님으로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로! 내가 지금 가죽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때에 따라선 해결 못하면서, 들고 다니는 걸 할려고? 어림없지 어림없어! (대중 박수)

다 먹고도 되남는 도리

그럼 오늘 끝으로 이런 말 한마디만 하죠. 항상 조심할 것은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인없는 빈집이 돼 가지고 그저 아무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세균성, 영계성, 윤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엉켜서 아주 고질병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꼭 그놈만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놈한테서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조상들을 수만 분을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부처님과 한자리죠. (대중 박수) 끝.

※위 법문은 1994년 11월 13일 부산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극락장엄경(무량수경) 대강좌(1년)

정토삼부경중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범본에서 직접 번역하여 출간하였던 극락장엄경을 이번에 최봉수교수 저자께서 직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신행과 정토건설을 위한 무량수경 대강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최봉수 교수

1년	극락장엄경 (무량수경)

◆ 극락장엄경(무량수경) 강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의

인도 · 티벳어학과 개설!!

1. 동산불교전문연구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 · 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 교수(승가대)

2. 교과목

1년차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법화경강독
2년차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잡아함경강독
3년차	티벳트어 : 티벳트어문법 · 보리도차제론강독

◆ 인도티벳어학과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TEL 02)732-1206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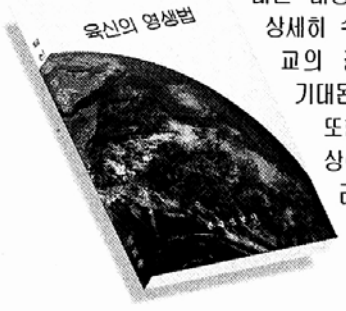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활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2)2242-1049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생식마을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본당 하버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올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올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올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본당 차병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올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비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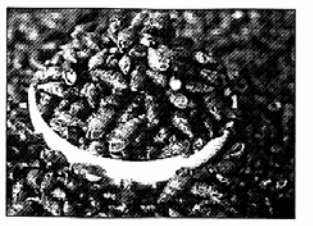
생식 완료 현미, 대추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참근, 우엉, 신선초, 케일, 청프리, 감잎, 콩잎, 검,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